인천대학교 소식지 2017 가을호 VOL. 75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
국립인천대학교 소식지

AUTUMN 2017. vol.75

인천대학교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송도캠퍼스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제물포캠퍼스 22100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대길 319
미추홀캠퍼스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Tel.** 032-835-9331 **Web.** www.inu.ac.kr

INU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한 대학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월급의 70%를 저축하는 등 근검절약 정신이 투철하기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백화점 쇼핑은 고사하고 두 딸에게도 브랜드 물건을 사준 적이 없었고,
심지어 가족 외식조차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에게도 마음껏 돈을 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였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장애우들을 위해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매달 월드비전·유니세프 등의 구호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며 어려운 이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 간 일한 캠퍼스를 떠나야할 날이 왔습니다.
그는 정든 학교를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장애우를 위해 써달라며
30년 간 어렵사리 모은 돈 1억7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오래 전 어렵던 시절에서 벗어나 무사히 자녀도 키우고
정년까지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학교 덕분입니다"**

라며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소비는 엄격했어도 나누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던 그처럼
내일은 세상이 좀 더 넉넉해지길 바라봅니다.

-이 글는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김정창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무통장 후원하기 :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인천대학교 소식지
2017년 가을호 통권 제75호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조동성 **발행처**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032-835-9331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www. inu.ac.kr
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032-423-1988

01 함께 만드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항구도시 대학의 협력 기반을 다지다 04
디지털 혁명 준비, 미래의 답을 찾다 08
PUL 총회 개최, 혁신적 네트워크와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다 10
국내 최초 한국형 스마트시티 조성, 인천대가 함께 간다 12
여기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된 감동의 축제 14
바퀴달린 사과, 세 번째 이야기 16

02 비전이 완성되는 캠퍼스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 '최우수' 등급 획득 18
테러리즘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새롭게 규명하다 20
해양연구, 미래산업을 책임진다 해양학과 22
2018학년도 정시모집, 전략으로 승리하자! 24
캠퍼스 이모저모 26
INU 뉴스 30

03 희망을 전하는 약속

대학의 관심이 지역의 발전으로 기계공학과 91학번 김응호 32
동문소식 33
나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전 정상철 교수 34
발전기금 뉴스 36
발전기금 현황 37

QR 코드를 통해 인천대학교 소식지를
이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항구도시 대학의 협력 기반을 다지다

제1회 포트시티 유니버시티 서미트(PUS)

우리대학은 제11차 항구도시대학연합(The Port-city Universities League) 연차총회와 동시에 제1회 포트시티 유니버시티 서미트(Port-city University Summit, PUS)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세계적인 항구도시 대학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린 2박 3일간의 일정, 그 열기 가득한 현장을 돌아보며 PUS가 가진 의미를 짚어봤다.

edit 신경화

글로벌 항구도시 대학총장과의 콜라보레이션

세계 유일의 항구도시 대학 협의체인 항구도시대학연합(The Port-city Universities League, PUL)은 매년 연차총회를 열어 학술발표 및 연구 포럼 등을 진행해왔다. 올해 제11차 PUL 연차총회의 무대가 된 우리대학은 이전 총회와는 다른 특별함을 행사에 가미했다.

“세계적인 항구도시 대학들이 모이는 만큼 학술적 연구 외에 각 대학 총장들이 함께 협력할 방법은 없는지, 항구도시 발전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운영과 교육체계, 프로그램 등은 물론 시대 변화에 따른 역할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죠. 바로 제1회 포트시티 유니버시티 서미트(Port-city University Summit, PUS)입니다.”

PUS를 기획하고 진행한 동북아물류대학원 물류전공 신광섭 교수는 기존 우리대학과 MOU를 맺은 학교를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국내외 항구도시 대학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이메일과 직접 방문 등 다각적인 초청 작업에 나섰다. 각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존 일정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총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부총장이나 처장이 대신하겠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모든 것이 불투명했지만, 신 교수는 이번 무대가 항만도시 대학들 간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 입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국가 중요 시설인 항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배경과 아울러 미래를 대비한 정책 등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항만 운영이나 개발 계획이 잘못 만들어지면, 그 위에 얹어지는 해운 물류나 수산업 등이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항구도시 대학의 정책적 제안은 일차적인 역할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은 역시 인재양성입니다. 결국은 그 인재들이 지역사회, 국가에서 항구 발전을 위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국내외 항구도시 대학은 그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속속 모여들었다. 학문적 토대와 총장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항구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PUS를 빛낸 특별한 강연, 주제발표, 그리고 문화 콘텐츠

신 교수가 초청 서안을 보내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면, 국제교류원은 일정에 따른 장소 섭외 및 기타 체류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도맡으며 5개월여 동안 PUS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9월, 제1회 PUS가 해외 50여 명의 총장 및 부총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우리대학 조동성 총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융합적 인재를 찾고 있다. 바다와 육지, 국내외 학계와 재계 등 모든 복합적인 요소를 갖춘 항구도시 대학이야말로 융합을 통한 혁신이 시작되는 능력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PUS를 통해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지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별 강연자로 초청된 현대 경영학의 최고 권위자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인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Smart Connected Products, SCP)'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초연결 사회라고 불리는 SCP란, 과거에는 사람이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그걸 인지해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이제는 기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아서 미리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나 인공지능 등이 탑재된 곳에서 바로바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 장비가 통신하는 시대, 기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한 강연이었다.

세계적 석학 포터 교수가 강연하게 된 것은 조동성 총장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CSV(Creating Shared Value)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이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른바 '협업적 공유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으로, 포터 교수가 처음으로 주창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부문별 기업을 선정해 CSV 포터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는데, 이 상을 처음 기획한 사람이 다름 아닌 조동성 총장이다. PUS의 특별 강연에는 특별한 인연이 숨어있었던 셈이다.

뒤를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항만도시에 위치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동성 총장, UAE 라스 알 카이마 아메리칸 대학교의 하산 알 알킴, 중국 난카이대학교의 얀 천후아 부총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항구 도시 대학의 역할 및 항구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본 요코하마대학교의 유이치 하세베 총장, 미얀마 해양대학교의 미얏 르윈 총장, 국립 대만해양대학교의 창칭퐁 총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마지막 주제는 '항구 개발의 우수사례 및 국제 협력'으로 라스 알 카이마의 클리포드 윌리엄 브랜드 대령, 아세안대학네트워크의 촐티스 디라티티 사무국장, 바나라스 힌두대학교의 라마슈레이 프라사드 싱 총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총장님들이 그렇게 열띠게 토론하는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의 총장님들이 서로 발표하겠다고 나서서 시간을 쪼개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때문에 많이 아쉬워 하셨죠."

참석자들은 PUS의 학술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대학 공연예술학과에서 준비한 부채춤과 소고 등 한국무용, 프랑스 출신 피아니스트 David Fray와 Sejong Soloists의 앙상블 공연은 보는 내내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리더십을 넘어 의장국으로서의 오너십 획득

PUS 폐회사를 진행하던 조동성 총장이 "다음에는 어디서 할까요?"라며 즉석 질문을 띄우자, 대만의 대학총장이 손을 들어 "우리학교에서 하겠다."라며 화답했다. "3차는 우리가 하겠다."라며 잇따라 다른 총장이 손을 들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개최지가 결정됐고 그 외에도 교환학생이나 복수학위제 등에 대한 잠정적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대학은 물류대학원을 설립한 국내 최초의 대학으로서 글로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수학위제도 그중 하나죠. 이번 PUS를 통해 각 대학총장을 직접 만날 수 있었고, 우리 물류대학원을 알리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복수학위제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실무 작업이 남아있지만, 대학의 최종결정권자가 승인한 사항이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최종 합의와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또 첫 회의 성공적인 성과를 발판으로 PUS의 국제적 위상은 점차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2회, 3회 그 이상으로 행사를 열어 가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을 우리대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장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대학은 PUS를 통해 리더십을 뛰어넘어 오너십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PUS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 또한 참석자들의 뜻이다. 신 교수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교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보완해야 할 점을 느꼈다고 한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려면, 단과대를 실제 운영하는 학장님들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업무를 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PUS는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제적인 오너십을 더욱 강화했으면 합니다."

이제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끼워졌다. 그 한 걸음이 어떠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속단하긴 이르다. 순탄한 과정이 꼭 성공적인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열의와 참여가 있을 때, 그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대학이 짊어질 더 큰 역할,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디지털 혁명 준비, 미래의 답을 찾다

마이클 포터 기조강연

지난 9월 18일 우리대학에서 열린 '포트시티 유니버시티 서밋(PUS)' 행사는 11개국 48개 대학이 모인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현대 경영학의 최고 권위자인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의 특별 강연이다.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를 주제로 무대에 오른 마이클 포터 교수와 그 외 교수들이 열띤 토론을 펼친 뜨거운 현장으로 돌아가 본다.

edit 유서진

세상을 변화시킬 4차 디지털 혁명의 시작

이번 행사에서 마이클 포터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인 '스마트 커넥티트 프로덕트(Smart Connected Products, SCP)' 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으며, 이후 항구도시의 경쟁력과 항구도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데이터와 인간이 융합하는 4차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스마트폰이 변화를 이끌었지만 4차 혁명 시대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스마트글라스가 시장을 선도할 겁니다."

포터 교수가 PUS 행사 기조강연에서 한 말이다. 이어 그는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이 늘어나면서 예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데이터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IT혁신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세 차례 바꿨다고 분석했다. 1960년대 최초의 IT혁신으로 업무 처리 자동화가 이뤄졌고, 1990년대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세 번째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면서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이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과거와는 다른 제4의 디지털 혁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포터 교수는 "3차 디지털 혁명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와 디지털 데이터가 분리돼있어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4차 디지털 혁명부터는 디바이스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결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4차 디지털 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설명했다. 포터 교수에 따르면 우리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더라도 종종 길을 잘 찾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는 2차원(2D) 영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과 현실 세계를 결합하는 AR 기술이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면 자동차 앞 유리에 운전자가 가야 하는 방향이 직접 표시되기 때문에 기존 내비게이션의 불편함은 사라진다.

디지털 혁명, 인간의 생산성 향상 기대

포터 교수는 최근 디지털 혁명의 파도 속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 번에 걸친 디지털 혁명은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도 창출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AR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터 교수는 "비숙련 노동자들도 AR이 제공하는 정보 덕분에 단기간에 숙련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AR은 임금 격차를 줄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터 교수는 이날 인천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제4회 CSV 포터상' 시상식에 참석해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에서 큰 성과를 낸 기업 및 기관에 상을 수여했다. CSV는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자는 개념으로 포터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포터 교수는 CJ그룹이 실버택배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택배 효율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경제잡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를 바꾼 기업(Change the World)'에 한국 기업 중 최초로 선정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CSV 포터상 덕분에 한국 사회에 CSV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4년 후쯤에는 한국 회사가 세계를 바꾼 기업 1위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의 시작, 항구도시 대학이 풀어야 할 과제

포터 교수의 기조강연이 끝난 후에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대학 조동성 총장, UAE 라스 알 카이마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of Ras Al Kjaimah)의 하산 알 알킴(Hassan H. AL Alkim), 중국 난카이 대학교(Nankai University)의 얀 천후아(Yan Chunhua) 부총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라스 알 카이마의 클리포드 윌리엄 브랜드 대령, '항구 대학의 역할 및 항구도시 개발'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 세션에서는 일본 요코하마대학교의 유이치 하세베(Yuichi Hasebe) 총장, 미얀마 해양 대학교(Myanmar Maritime University)의 미얏 르윈(Dr. Myat Lwin) 총장, 국립 대만 해양 대학교(National Taiwan Ocean University)의 창칭퐁(Chang Ching Fong) 총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또 아세안대학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 AUN)의 촐티스 디라티티(Choltis Dhirathiti) 사무국장, 바나라스 힌두 대학교(Banaras Hindu University)의 라마슈레이 프라사드 싱(Ramashray Prasad Singh)총장이 '항구 개발의 우수사례 및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제1회 PUS를 진행한 조동성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찾고 있다. 바다와 육지, 국내외, 학계와 제계 등 모든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항구도시 대학이야 말로 융합을 통한 혁신의 시작을 받아들일 능력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PUS가 글로벌 항구도시 대학들이 당면한 과제를 함께 인식하고 참가대학 간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UL 총회 개최, 혁신적 네트워크와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다

우리대학이 국제적 행사인 제11차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다시 한번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했다. 총회는 공동연구와 전문 세션 세분화를 통해 정책적으로 실용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각 대학 및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새 지평을 열었다.

edit 신경화

공동연구 및 실용정보 교류의 새로운 장

우리대학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11차 항구도시대학연합(the Port-city Universities League, 이하 PUL) 연차총회를 개최했다. 영국, 일본, 중국, 브라질 등 12개 국가에서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PUL은 세계 해양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항구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세계 유일의 항구도시 대학협의체다.

지난 총회가 학술 교류의 측면이 강했다면, 이번 총회는 기획 단계부터 실제 인천항을 운영하는 항만공사와 인천시가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항구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실용적으로 다루었다는 평가다. 이는 세계 각 기관이 개별연구보다는 공동연구에 방점을 찍어 공통 이슈를 중심으로 각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사전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대학은 총회 전에 열린 영국 워크숍에서 공동연구 주제와 제목을 확정하고, 더욱 실용적인 학술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사전 워크숍에서는 기존 항만의 스마트화, 신규 항만의 방향성, 항구도시의 환경과 생태계 문제 관리, 지속가능한 항구도시 인프라 구축 등 네 가지 공동연구 제목을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총회에서는 전문 세션을 세분화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PUL 조직위원장인 건설환경공학전공 최계운 교수는 총회 개최 배경에 '살아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려는 우리대학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한다.

"이번 총회는 항구도시에 대한 공동연구와 전문 세션을 세분화한 최초의 총회로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해외의 항만도시대학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미진한 부분이 많았는데, 함께 연구하고 각계의 상황을 교류해 정책적으로 실용적인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죠. 실용화를 베이스로 연구가 추진되고, 또 그를 기반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는 살아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진행을 이끈 세부 프로그램

제11차 PUL 연차총회는 최계운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리대학 조동성 총장과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이 축사를 이어갔다. PUL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항만도시 발전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기관 및 일반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카무라 부총장(일본 요코하마대학)이 '항구도시를 위한 스마트 도시 교통체계'를 주제로 첫 번째 기조 강연자로 나섰다. 물류, 인프라, 관리 등 항만의 운영과 관련해 특히 교통체계를 어떻게 스마트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신경남 센터장(녹색기술센터)은 다음 기조 강연자로 나서 기후기술 협력 프로세스와 해외 기술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해, 기후변화와 관련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첫날 오후와 둘째 날 오전까지 이어진 전문 세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1. 해양과 항만의 관광개발 2. 항만과 물류 3.인천의 항구와 바다 이야기 4. 녹색항구 도시계획 및 해양공학 5. 항구도시에서 해양오염 6. 생태계 건강 그리고 블루 카본 리싸이클링 7. 항구도시 인천의 미래 만들기 8. 녹색항구와 환경 9. 스마트 IT 어플리케이션과 최근 경향 10. 심해자원 탐사와 환경보호 연구 등 총 10개로 세분화된 세션에서는 PUL 기관은 물론 국내 NGO와 시민들의 참여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펼쳐졌고, 꾸준히 실용적인 대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포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어서 사전 워크숍에서 정한 네 가지 공동연구를 가지고 PUL 국제 공동연구 포럼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은 인천항만을 견학해 인천대교, 인천신항의 조성현황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제11차 PUL 연차총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성공적 개최로 국제적 리더십 인정받아

최 교수는 이번 총회를 "프로젝트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우리대학이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그 리더십을 인정받는 계기" 가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항만도시의 실상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동시에 관련 기관이 실천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 기반을 탄탄하게 조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미래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의견을 모아가면, 항구도시 인천은 시민들이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의 면면에서 인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역량을 지켜보며 1+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대학의 무한한 가능성은 역시 구성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11차 PUL 연차총회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공동연구의 차원에서 학술교류는 물론 공동연구 제안이나 학생교류, 기자재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예정돼있다. 항구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는 글로벌 대학, 우리대학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름이다.

국내 최초 한국형 스마트시티 조성, 인천대가 함께 간다

원도심 재생사업, 4자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원도심 재생사업에 최첨단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을 선포했다. 이번 여정에는 국내 최고의 건설사 포스코건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기술을 갖춘 독일 기업 ㈜지멘스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대학이 있다. 대학이 이처럼 큰 규모의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9월 14일, 인천시와 인천대, 포스코건설, ㈜지멘스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사업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edit 유서진

인천시-인천대-포스코건설-㈜지멘스 '맞손'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뜨거운 감자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스마트시티'다.

스마트시티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 첨단 IT기술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도시를 일컫는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집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텔레워킹'의 보급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을 발 빠르게 준비해나가는 추세고, 이제 막 글로벌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도 스마트시티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갔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이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지능형 기반시설 위주의 신도시 개발에 주력했다면, 인천시는 종합적인 원도심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막중한 과제는 인천시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를 실현시킬 막강한 기술력이 절실했다. 그래서 인천시가 도움을 요청해온 곳이 우리대학이었다. 지역의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국립대와 손잡음으로써 훌륭한 교수진의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젊은 인재의 열정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에 합류한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술을 보유한 ㈜지멘스와 신도시 개발 기술의 선두주자인 포스코건설이 뜻을 모아 마침내 긴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교내 연구소 설치 운영, 11개 분야 스마트시티 기술 접목

이번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우리대학과 지멘스가 주도해 캠퍼스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진행하는 1단계, 산·학·관 4자가 참여해 우리대학에 저탄소 그린캠퍼스를 구축하고 원도심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2단계, 캠퍼스 내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 스마트 캠퍼스를 실현하고 인천시의 원도심 스마트시티 확산사업과 복지 사각지역에 에너지 자립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3단계 사업이다. 계획에 따라 교내에는 사업 연구를 위한 'Energy Excellence Smart City Lab'이 설치됐다. 이어 취약계층이 많은 중·동구 등 원도심 12개소를 시범 대상구역으로 지정, 보건·의료·복지·환경·교통·교육·방범 등 11개 분야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시킬 예정이다. 우리대학도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멘스의 기술을 통해 냉동기 최적화, 시스템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협력할 수 있어 연간 공공요금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책사업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에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사례가 최초이기도 하지만, 산·학·관이 소통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 보도 후 타 지자체나 대학에서도 수십 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니 세간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함께 연구에 참여하는 포스코건설 역시 인천시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건설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진출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기업 연구 참여… 글로벌 도시로 우뚝

올해 말까지는 실무추진단 구성과 거버넌스 구축에 주력한다. 내년부터는 기술 연구개발과 동시에 지멘스와 포스코건설의 독보적인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화 등 인천 원도심의 스마트화를 진단, 분석한다. 특히 직접 연구가 가능한 글로벌 기업이 프로젝트에 협력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미래가 밝다. 이를 통해 원도심의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4대 약자 친화형 도시를 건설하고 IoT 기반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원도심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결코 쉽지는 않을 터. 하지만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인 뜻깊은 사업이니 그 앞날이 장밋빛일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된 감동의 축제

인천뮤직, 힉엣눙크 'Bach and Beyond'

지난 9월 18일, 수업이 모두 끝났을 저녁시간이지만 왜인지 캠퍼스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바로 올 7월 첫 선을 보인 클래식 페스티벌 '인천뮤직, 힉엣눙크(hic et nunc)'의 두 번째 무대를 보기 위해 700여 명의 발길이 몰린 것이다. 선선한 어느 가을날,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연주를 선사한 현장의 열기를 엿본다.

edit 유서진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 인천대로 모이다

많은 이의 호응 속에서 막을 내린 가을 음악회 'Bach and Beyond(바흐 앤 비욘드)'. 이번 행사는 우리대학과 세종솔로이스츠가 함께 기획한 무대로, 인천시를 예술도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격 문화공연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열린 첫 번째 공연에서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명 연주를 펼치며 호평을 불러일으킨 덕에 이번 행사 역시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었다.

공연 시작 전, 하나 둘 대강당으로 들어서는 관객들의 얼굴에는 오늘 공연에서 연주자들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신선한 연주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해외 연주자들의 실력이야 말할 것도 없고 협연하는 세종솔로이스츠 역시 CNN이 극찬한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공연이 시작됐다. 이번 공연의 선곡 기준은 바흐와 그를 선망하던 작곡가들의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첫 무대는 프랑스 피아니스트인 다비드 프레이(David Fray)와 세종솔로이스츠가 함께 공연했다. 타이틀인 'Bach and Beyond'라는 제목으로 바흐에서 현대 곡까지 모두 아우르는 예술성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동세대 중 가장 독창적인 바흐 연주자'라는 칭호를 얻은 프레이는 공연에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건반 협주곡 제4번 A장조, BMW 1055'와 '건반 협주곡 제1번 D단조, BMW 1052'를 연주해 관객을 매료시켰다. 'Bach and Beyond'에서 프레이가 'Bach' 역할을 맡았다면, 세종솔로이스츠는 'Beyond'를 훌륭하게 표현해냈다.

관현악과 피아노의 선율이 적절히 어우러지자 무대는 더욱 화려해지고 풍성해졌다. 연주하는 이도 신이 났지만 관객도 이에 못지않게 연주에 집중하며 클래식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스토코브스키가 편곡한 바하 아리아와 말러가 편곡한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Opus 95 '세리오소'는 정교하면서도 박진감 넘쳤다. 클래식이 누군가에겐 따분할지도 모르는 분야일 테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귀에 익은 멜로디였기에 관객들도 지루함 없이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관객 매료시킨 시청각의 조화

아마 관객들에게 "이번 공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라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아련한 기억 속의 속삭임'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시카고 심포니 상임작곡가인 어거스타 리드 토마스가 세종솔로이스츠를 위해 만든 것으로, 세종솔로이스츠의 장점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구성된 곡이기 때문이다. '아련한 기억 속의 속삭임'이 연주되자 네덜란드의 화가 노만 페리만이 음악에 맞춰 무대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인 '키네틱 페인팅'을 선보였다.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 어거스트 리드 토마스는 2000년 음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지멘스 음악상'을 수상한 거장이며, 노만 페리만은 음악에 맞는 추상 이미지를 창조하는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세계 1인자다. 토마스와 페리만은 관객에게 해외 최신 트렌드인 융합무대를 선보임으로써 이번 공연의 예술적 취지를 전달했다. 선율과 함께 교차되는 영상을 보는 관객들의 얼굴에 감동이 묻어났다. 마지막 곡까지 모두 마치자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연주자들의 열정에 화답하듯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조동성 총장은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기여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음악제를 통해 인천이 글로벌 문화도시로 발전될 가능성이 보여 기쁘다."고 말했다.

힉엣눙크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세종솔로이스츠 관계자는 "2018년부터 해마다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는 예술가를 상임 예술가로 뽑아 그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임 예술가는 독일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작곡가, 지휘자이기도 한 외르크 비트만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바퀴달린 사과, 세 번째 이야기

이강안(체육학부 11)
문영준(신문방송학과 11)
정구현(무역학부 11)

edit 최단비

지난 3월, 1,740km의 베트남 종주를 진행한 '바퀴달린 사과'가 또 한 번의 자전거종주를 기획했다. 이번에는 2,500km의 일본 여정이다. 이들은 일본에게 사과 받기 전 우리가 베트남에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베트남을 다녀왔다. 그리고 지난 8월, 마침내 떳떳한 마음으로 일본 횡단을 진행했다.
베트남 여정보다 12일, 약 2배의 거리가 늘어났지만 2명의 멤버가 함께했기에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이곳에 '바퀴달린 사과'가 그려나간 청춘 이야기를 소개한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소원을 품고

"너희도 베트남에 사과를 안했는데 우리가 왜 해야 하냐." 수요집회에 참석한 이강안 학생에게 한 일본인이 던진 말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우리의 잘못을 걸고 넘어지는 일본인의 태도를 보며 이강안 학생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은 일본에 가기 전 지난 2월 베트남에 먼저 들렀다.
출발 전 세 사람은 위안부 어르신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에 들렀다. 할머님은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이 문제를 많이 알리고 오라며 격려했다. 세 사람은 할머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리플릿과 플랜카드를 들고 프리허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12·28합의는 잘못된 합의. 우리는 이 합의가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만들었다. 디자인과 번역은 학우들이 기꺼이 도와주었다. 근로학생으로 일하던 곳의 선생님께서 좋은 일을 한다며 선뜻 백만 원을 기부해주시기도 하고, 동기들도 한 푼 두 푼 용돈을 아껴 마음을 보탰다.

왜곡된 역사, 프리허그로 알리다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44일간 삿포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의 각 지역을 거쳐, 부산과 인천을 지나 마지막으로 수요집회에 참석했다. 각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1시간씩 프리허그를 진행했다. 하루에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릴 때도 있었고, 반면 20명이 안 되는 한산한 날도 있었다. 프리허그 외의 시간은 모두 자전거 종주를 위해 썼다.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오사카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했다. 잠은 준비해 간 텐트에서 잤고, 공원 화장실에서 씻으며 거의 노숙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그래도 이들이 준비한 플랜카드와 리플릿을 읽으며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다.
문영준 학생은 "플랜카드를 읽고 프리허그를 해주실 때 가장 뿌듯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덥고 짜증나는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는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참가한 위안부 할머님들이었다. 8월 16일, 할머님 두 분을 만나 허그를 하며 40여 일간 만났던 응원과 사과들을 모두 전해드리는 것으로 일정을 끝냈다. 할머님들은 세 사람을 꼭 안아주며 고마움을 대신했다.
정구현 학생은 "할머님들이 고생했다며 꼭 안아주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순간을 위해 힘들고 지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인생을 바꾼 의미있는 도전

처음 자전거 횡단을 기획했을 때 응원의 메시지도 많았지만, 주변사람들의 우려 섞인 시선 또한 감수해야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취업을 앞둔 나이라는 고민으로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강안 학생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했을 때 독도를 다케시마로 알고 있는 외국인 친구를 보며 결심했다. 제대로 독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 독도 알리기 미국 횡단을 하게 만든 첫 도전의 계기가 됐고 지금의 종주까지 이어진 것이다.
인생을 바꿀만한 도전이라는 점은 문영준 학생과 정구현 학생 또한 마찬가지였다. 문영준 학생은 자전거를 타본 적도, 가져

본 적도 없었다. 오로지 역사에 대한 관심만으로 종주에 참여했다. 정구현 학생도 옳은 일이라는 생각 하나로 동참했다.
정구현 학생은 "방학 때 다른 어떤 일을 했어도 이보다 더 값진 건 없었을 것 같다. 하기 전엔 고민이 많았지만 하고나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말했다.

사람들 마음속에 피어날 변화

이번 일본 종주 후 이강안 학생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느꼈다. 베트남과 달리 일본은 그들을 환영하지도 반기지도 않았다. 언론이나 SNS의 반응도 없었다.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이강안 학생은 올 겨울 한 번 더 베트남에서의 사과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아마 대학생 신분으로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좀 더 열정적인 활동으로 현지에 많은 것들을 알리고 오고 싶다."고 말했다.
문영준 학생은 "우리의 자전거 종주가 세계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 '최우수' 등급 획득

[전자공학과 DSP-IN-U 스마트디바이스인재육성사업단]

과연,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2년간의 끊임없는 준비 끝에 전자공학과 DSP-IN-U 스마트디바이스인재육성사업단(단장 서정현)이 교육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 A등급(최우수)을 받은 까닭이다. 노하우가 무엇일까? 해당 사업단을 방문하여 그 스토리를 들어봤다.

edit 이소영 photograph 이덕재

신新개념 교육프로그램으로 세간의 주목을 이끌다

최근 우리학교 전자공학과 DSP-IN-U 스마트디바이스인재육성사업단(단장 서정현)이 교육부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전국 109개 대학, 323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차평가에서 본 사업단은 경기·인천 대학자율 공학(소형) 분야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여 전체상위 20%에 해당하는 A등급 중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사업단을 꾸린 지 약 2년만의 쾌거였다.

사실, 본 사업단은 2015년도에 이미 해당 특성화사업에 참여 신청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떨어졌다. 사업단을 구성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탓이었다. 이후, 사업단은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 자체 특성화사업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사업단 특유의 교육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다. 요컨대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두루 매만지고 체계화한 것이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이 가능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기존 교과목을 재편하고 패턴인식·컴퓨터비전 등 신규교과목도 4~5개가량 개설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마인드를 새롭게 심어 주고자 EATED(연구체험 프로그램), STAR(멘토동반 역량강화 프로그램), EDISON(창의성을 고양하는 임베디드 실습 교육), ENTER(하이레벨 엔지니어 육성 프로그램) 등 비교과과정도 구축했다.

전공 교육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이 아닌, 학습동기 유발 및 학업의지 향상을 초석으로 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교육시스템이 제아무리 좋다 해도 학생들이 그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수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지향 시스템

이렇듯이 해당 사업단은 학생들이 인생 나침반을 설정하는 데에 주목표를 두고 장기적인 교육프로세스를 추진한다. 물론 쉽진 않다. 그럼에도 전자공학과의 특성화사업단은 그 과정들을 매우 성실하고 탄탄하게 일구어내 가고 있다. 서정현 단장은 그 자양분이 학과 교수진에 있다 단언한다.

"저희 전자공학과는 이제껏 매주 학과 회의를 진행해 왔을 정도로 교수님들 열정이며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사업단이 이번 연차평가에서 좋은 성과 거둔 것도 그래서죠. 사실, 전공 교육 외에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사업단의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힘을 보태 주셔 감사드립니다."

교수진의 열의 덕분인지 학생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막연할 따름이었는데 여러 특성화사업프로그램을 통해 교과목에 대한 흥미 혹은 호기심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 학생들의 설명. 이는 나아가 학문의 이해를 한층 깊이 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일회성에 그친 교육시스템이 아니라 DSP-IN-U비전 즉 Dream(꿈의 설정), Speciality(전문성의 구축), Positioning(위치 확립) 3요소가 학생들의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는 스마트디바이스인재육성사업단. 이를 통해 탄생하게 될 인재들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Mini Interview

서 정 현
단장

연차평가 A등급 획득으로 사업단의 교육프로그램 신뢰성과 가치 등을 두루 인정받은 듯해 매우 기쁩니다. 지나면 잊히는 지식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가슴속에 남아 오래도록 인생을 영글게 만드는 교육을 하도록 끊임없이 프로그램 모니터링하고 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공들여서 만든 교육프로그램이니 만큼 사업단의 자부심도 남다르니, 학생들도 이를 알고 적극 참여하여 부디 좋은 성과 내길 바랍니다.

테러리즘의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새롭게 규명하다

[정치외교학과 박요한 교수]

최근 우리대학 정치외교학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박요한 교수의 논문이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분쟁해결저널]」에 실린 것. 국제테러리즘이 국가지도자의 정치적 수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이 논문을 통해 박요한 교수는 국내외 학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edit 이소영 photograph 이주용

'테러리즘의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박요한 교수의 논문이 게재된(2017년 8월호)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분쟁해결저널]」은 국제정치 및 국제분쟁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중에 하나다. 그만큼 심사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 그렇다면 박요한 교수의 논문 〈국제테러리즘과 지도자의 정치적 생존(International Terrorism and the Political Survival of Leaders)〉이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에도 테러리즘 영향력을 다룬 논문들은 존재했다. 대부분 건강 관련 연구였다. 테러리즘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그로 인한 질병 같은 주제들이 대표적인 예다. 다시 말해 테러리즘 영향력을 정치외교학적으로 풀어낸 논문은 그동안 손쉽게 찾아볼 수 없었단 것.

"물론 테러리즘 연구는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테러리즘 원인이나 평가기준 등을 규명하는 연구였지,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정치적/외교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테러전문가인 맥스 아브라함스는 정의했다. 테러리즘이란 비정부단체가 특정한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그렇다면 테러 당한 국가들은 실제 정책이나 국가운영 방침 등을 바꾸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테러리스트들은 왜 윤리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지탄 받을 만한 행위들을 하는 걸까? 더군다나 테러리스트들 가운데는 합리적 이성적 성향이 많다는 연구가 있는데 말이다. 박요한 교수의 논문은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

"비정부단체가 테러리즘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일까 연구하다 보니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더군요. 여러 통계들을 분석해본 결과 집권기간 중에 테러 당한 수가 많은 지도자일수록 정치적인 생명력이 크게 단축되더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흔들린 만큼 국가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도 자연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요컨대 테러리스트는 현 정권에 타격을 가하고 나아가 정권의 교체를 꾀하는 자체가 목적인 셈이다. 비민주국가에선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한다. 박요한 교수는 이에 착안, 테러리즘 영향력을 국가지도자의 정치적 수명과 연계해 연구를 진행했다.

실효성 있는 연구로 국가에 도움 되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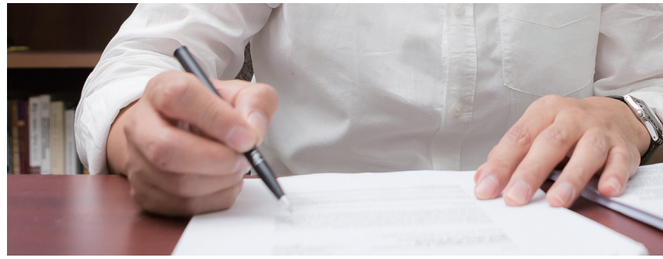
테러리즘 현상을 정치적 생존에 접목해 연구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박요한 교수가 최초다. 신선한 발상에 학계의 기대도 뜨겁다.

"인천대학교에 부임하기 전에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직을 수행하며 '테러리즘 타이밍'에 관해 연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테러리즘이 선거 기간 중에 많이 발생하며 효과적인 이슈화를 위한 계산임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번 연구 모티브를 설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 됐습니다."

박요한 교수는 지난해 초 모교인 인천대학교에 둥지를 틀었다. 교육자로서는 물론 선배로서 사명감이 있어서다.

"눈으로 보이는 사회적 현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본질을 꿰뚫어 볼 비판적 사고와 안목을 키워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생각하는 법을 깨달으면 인생의 깊이도 한층 더해질 테니까. 그걸 후배이자 제자들이 느꼈으면 해요."

한편, 그의 다른 논문 〈싸움 상대 고르기: 민주국가의 자유주의적 제약과 그에 따른 선별적 국제분쟁 선제공격(Picking a Fight: Democracies, Liberal Constraints, and Selective Conflict Initiation)〉은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 최초 사회과학분야 학술논문 인용지수(SSCI)급 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9월호에 게재된다.
안보의 학문적 근간을 더욱 탄탄히 마련해 대한민국 안보정치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정치외교학자 박요한. 그가 있어 든든하다.



해양연구, 미래산업을 책임진다

[해양학과]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대표적인 항구도시다.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배치하고자 우리대학은 지난 2012년 인천지역 특성화 전략에 따라 해양학과를 설치했다. 올해로 설립 5년차가 된 해양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국내 최고의 해양 관련 학과로 주목받으며 우리대학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edit 유서진

'선택과 집중'으로 전문적인 교육 제공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해양에 관련된 학과를 보유한 학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경인지역 거점국립대로서 해양학과를 보유한 대학은 우리대학이 유일하다. 타 대학보다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우리대학은 확실한 차별화를 꾀했다. 바로 해양화학과 생물분야의 특성화다. 일반적으로 해양학은 종합학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기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과 그 과정을 총체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현대 해양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었으며, 판구조론 및 열수생물의 발견은 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우리는 여전히 심해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할뿐더러 해저의 지형은 화성보다도 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생소하다. 그렇기에 신지식 창조를 목표로 더욱 다차원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다.

해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물리, 화학, 생물, 지질 등 전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동반돼야만 한다. 하지만 한 학과에서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을 배우면 학생들이 다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진로 선택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대학 해양학과가 선택한 방법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였다. 그때부터 우리대학은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일반화학실험, 일반생물학, 해양학개론, 환경수생태학 입문, 생물통계학, 해양환경화학 및 실험, 연안생태학 및 실험, 수환경 보존학, 생물해양학 및 실험, 적조 및 유해생물학, 극지생물학, 수환경 신소재 물질 분석 및 실험, 해양생명공학 및 실험 등으로 수업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선택과 집중'이란 슬로건 아래 더욱 심도 깊은 교육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실습과목 운영하며 실무역량 강화

우리대학 해양학과의 특별한 점은 지역 기반 대학 특성화 전략 학과라는 것이다. 영국 플리머스대학, 벨기에 겐트대학, 스페인 말라가대학, 중국 국립해양대학, 일본 북해도대학과의 국제적 연계를 통해 복수학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 서울대 해양학과, 인하대 해양학과와의 학점 교류를 실시해 타 대학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극지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보건환경연구원과의 네크워크를 구축해 현장실습 및 취업의 기회를 확충해나가고 있다. 또한 다이빙 사이언스, 해양실습, 해양연구 방법론 등 실습과목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승규 학과장은 "다이빙 사이언스의 경우 학생들이 다이빙 관련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또 모든 2학년 학생들과 교수가 직접 바다에 나가 3박4일간 실습을 하기도 한다. 올해부터는 '해양연구 및 실습' 과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CEO강좌와 해양이슈 등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교과목도 운영 중이다. CEO강좌에는 해양 관련 기업과 기업의 CEO 및 연구원이 초청돼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실무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또한 매년 학술제를 열어 해양오염 등 해양 관련 주제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그 덕분인지 학생들은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열린 '에너지기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학부 아이디어 제작부분 대상(장관상)을 받았다. 학생들은 '대발생 파래를 이용한 천연 숯 생산 자원화 연구'를 통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같은 달 열린 '저탄소·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활동'에 참여, 환경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2017년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연차총회'에서도 해양학과 이지영 박사가 발표한 '한국 연안의 대표적인 저산소해역인 진해만에서 계절에 따른 미생물 군집 변화' 연구로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의 역량이 뛰어난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뒤에서 든든히 도와주는 교수들의 힘이 컸다. 해양학과는 우수 교수진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그 예로 김일남 교수가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2015년 인천대 해양학과에 부임했으며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 업적이 뛰어나다. 2016년 6월에는 대만에서 Chinese Geoscience Union으로부터 '2016 젊은 과학자 상(2016 Young Scientist Award)'을 받기도 한 인재다. 이재성 교수 역시 2014년 당시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국제환경독성학 및 화학회'(Society of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SETAC)의 국제학술지, 〈Environmental Toxicology & Chemistry〉 편집위원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우리대학이 중점연구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는데, 사업 참여교수 7명 중 4명이 해양학과 교수일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 유일의 해양관련 단과대학으로 발전 모색

졸업 후에는 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원, 한국토지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상연구소, 해양수산개발원, 해양경찰청) 및 환경관리공단, 기술직 공무원, 환경관련 기업체, 신문사, 해양오염방제 시설업체, 해양 환경관리/위해성평가 관련기업, 해양환경측정장비 개발업체 등에 진출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연구를 진행한다.

김 학과장은 "부산대 등 해양을 기반으로 한 주요 거점국립대들은 단과대학 차원의 해양대학이 있지만 인천에는 없다. 앞으로 우리대학이 단과대학으로서 해양대학으로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 면적의 70%가 바다일 정도로 해양생태계에는 수많은 생물이 존재한다. 인류생존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해양은 산업경제 및 국가안보로도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다. 해양의 이용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또 범세계적으로 관심이 늘어가는 지금, 앞으로 해양학과의 인재들이 얼마나 놀라운 연구를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 전략으로 승리하자!

내년 1월 6일부터 우리대학은 정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에 비해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할까? INU가 콕 집어주는 성공 키워드로 입시 승리자가 되어보자.

작년 대비 정시 모집인원 감소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모집 인원의 확대로 정시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9.1%p(226명) 감소한 855명으로(정원 내 기준, 이월인원 미포함) 다소 많이 축소되었다. 또한 작년까지 수시모집에서 충원율이 매우 낮았던 전형이 폐지됨에 따라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대평가 되는 수능 영어 영역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

올해부터 절대평가 되는 영어는 작년과 달리 반영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감점제'로만 반영한다. 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각 등급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여 입시총점에 가감하게 된다.

(예: 3등급은 입시총점에 19점 (+)가점, 6등급은 입시총점에서 10점 (-)감점)

전 학과 학생부 반영 폐지, 수능의 영향력 절대적, 디자인학부 실기고사 폐지

작년까지 20% 반영했던 학생부는 올해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능 100%로 전형을 시행한다. 따라서 올해 정시모집은 학생부 성적에 전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즉, 학생부 성적보다 수능 성적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한편 실기고사를 치르는 예체능계열의 경우 수능 40%, 실기 60%로 실기고사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디자인학부는 올해부터 실기고사를 폐지, 일반 인문·자연계열 학과와 동일하게 수능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학 가형 가산점 인문계열 학과로 확대, 자연계열 응시자는 반드시 과학탐구 응시

본교 정시모집에서는 수학 가/나형을 지정하지 않는다. 즉, 전 학과에 수학 유형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다. 또한 인문·자연계열 및 디자인학부에서는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취득 백분위의 15%에 해당되는 가산점을 부여,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입시총점을 산출한다. 한편 탐구영역의 경우, 인문·예체능계열 학과는 사탐·과탐(2과목)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며, 자연계(소비자아동·패션 제외)는 반드시 과탐(2과목)에 응시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수능최저기준 변화, 영어영역은 1등급 필수

본교 특성화학과인 동북아국제통상학부(다군 수능우수자 전형)는 타 학과와 달리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올해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짐에 따라 영어는 1등급 필수, 기타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합 3으로 수능최저기준이 적용된다. 기준 적용 시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이며, 이 중 1과목은 제2외국어(한문 제외)로 대체 가능하다. 입학생에게는 4년 전액 등록금 면제, 전원 1년 해외유학, 전원 기숙사 혜택이 주어진다.(재학 중 평점평균 기준 등 적용)

정원 외 〈기회균형〉 전형에 공연예술학과 모집단위 신설, 1명 선발

본교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매년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공연예술학과가 올해부터 정원 외 기회균형 전형에서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접수기간 2018. 1. 6(토) 9:00 ~ 1. 9(화) 17:00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유웨이어플라이 www.uwayapply.com

합격발표 2018. 2. 5(월) 본교 홈페이지 및 ARS 060-700-2100(코드700번)

문 의 ☎ 835-0000

다. 전형유형-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단위:명)

단과대학	모집단위	가군				다군				
		일반학생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출신자	일반학생	수능우수자	기회균형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출신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8	1	1						
	영어영문학과	14	1	1						
	독어독문학과	9	1	1						
	불어불문학과	9	1	1						
	일어일문학과	8	1	1						
	중어중국학과	15	1	1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9		1	1	
	물리학과					14		1	1	
	화학과					14		1	1	
	소비자아동학과					10		1	1	1
	패션산업학과					9		1	1	1
	해양학과					9+1		1	1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8	1	1						
	신문방송학과	7	1	1						
	문헌정보학과	8	1	1						
	창의인재개발학과	8	1	1						
글로벌법정경대학	법학부					17		2	1	
	행정학과					9+1		1	1	
	정치외교학과					7		1	1	
	경제학과					10		1	1	2
	경제학과(야)					22				1
	무역학부					20		2	1	2
	무역학부(야)					22				1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6	2	1	2					
	기계공학과(야)	22			1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0	1	1	1					
	전기공학과	19	2	1	2					
	전자공학과	20	2	1	2					
	전자공학과(야)	22			1					
	산업경영공학과	8	1	1	1					
	산업경영공학과(야)	22			1					
	안전공학과	10	1	1	1					
	신소재공학과	9	1	1	1					
	에너지화학공학과	8	1	1	1					
정보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					18		2	1	2
	컴퓨터공학부(야)					22				1
	정보통신공학과					21		2	1	2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10		1	1	1
경영대학	경영학부	28+1	2	1	3					
	세무회계학과	8	1	1	1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학부 한국화전공	10								
	조형예술학부 서양화전공	10								
	디자인학부	11								
	공연예술학과	6	1							
	체육학부	54+1								
	운동건강학부	47+1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		1						
	영어교육과	7		1						
	일어교육과	7		1						
	수학교육과	9		1						
	체육교육과	9								
	유아교육과	10		1						
	역사교육과	4		1						
	윤리교육과	4		1						
도시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					6		1	1	
	건설환경공학부					22		2	1	2
	도시공학과					8+1		1	1	1
	도시건축학부					24		2	1	2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17+1	1	1						
	생명공학부	19	2	1						
동북아국제통상학부							15			
합계		537+4	28	29	18	303+3	15	24	18	19

※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충원상황에 따라 증가될 수 있으며, 2016학년도 미충원인원(7명)은 일반학생 전형에서 선발
※ 사범대학 이외 학과에서 교직이수 불가

캠퍼스 이모저모

올 가을 우리대학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교수, 학생 구분 없이 세계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문화 체험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또 지역청년에게는 맞춤형 취업코칭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지원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가을 농부처럼, 쓰디쓴 노력 끝에 달콤한 열매를 거둔 우리대학 구성원들의 행복을 함께 나눕니다.

디자인학부, 국제 디자인 대회서 연속 수상

우리대학 디자인학부가 최근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속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7년 iF 디자인 어워드(학생부문)에서 디자인학부 박태영, 황선 학생팀(지도교수 안혜신)이 출품한 스마트 밴드 디자인, 공기압 깁스 디자인이 수상을 했다. 박태영 학생은 'Smart Homes, Connected Cities'분야에 시각 장애인들이 쉽게 스마트폰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밴드 디자인 'That's Write'을 출품하여 미래 스마트홈 분야에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평가를 받았고, 황선 학생은 'Future Healthcare'분야에 응급상황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압 깁스 디자인 'Air Cast'를 출품하여 사용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하노버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대회로 유명하며, 학생부문으로 열리는 iF Design Talent Award는 올해 전세계 45개국에서 5,011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중 14개국 68개 작품을 선정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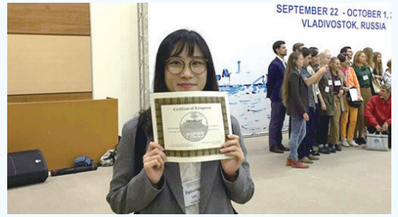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디자인학부 김수현, 안효진, 이형주, 권형기, 김상욱, 장은비 학생팀(지도교수 이운형)이 출품한 장침(Jang chim)이 디자인 컨셉 부문에서 최우수상인 'Best of Best'를 수상했다.

장침(Jang chim)은 한국 전통의 장침(베개의 일종)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된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대회로 유명하며, 올해 디자인 컨셉 부문에는 전세계 54개국에서 4,700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중 43개 작품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10월 18일(수) 저녁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7 레드닷 어워드' 시상식에 참가한 디자인학부 4학년 이형주 학생은 "한국 전통을 소재로 만든 디자인으로 해외에서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한국을 알리고 대학을 빛내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지영 박사,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우수 발표상 수상



해양학과 이지영 박사(지도교수 김일남)는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2017년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연차총회'에서 '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 해양생지화학 분야를 연구중인 이지영 박사는 총회에서 '한국 연안의 대표적인 저산소 해역인 진해만에서 계절에 따른 미생물 군집 변화(Seasonal microbial community composition in the Jinhae Bay hypoxic zone, South Korea)'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안 해양환경에서 인간활동으로 기인한 용존산소 감소가 미생물 군집 변화를 빠르게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했고,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젊은 해양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우수 발표상(Early Career Scientist Best Oral Presentation Award)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물포럼 총재상 수상

환경공학과 최민수 학생이 지난 8월 개최된 '제6회 아시아·태평양 대학생 물 의회'에서 '한국물포럼 총재상'을 수상했다. 아·태 지역의 대학생들이 각 나라를 대표해 전 지구적인 물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인 이번 행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선발된 26개국 57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했다. 전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토론과 선언문 작성, 국가별 보고서 발표, 전문가 담화, 물 관련 주제별 특강, 문화의 밤 등으로 짜였다. 이 중 성실한 참여와 리더십을 발휘한 모범 참가자를 선발, 환경부장관상, 한국물포럼 총재상, 울산관역시장상, 월로 재단 이사장상 등을 수여했고, 우리대학 최민수 학생은 '한국물포럼 총재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클라이메이트 팀, 제6회 국제개발 논문 경시대회 '우수상' 수상

우리대학 '클라이메이트' 팀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한 '제6회 대외경제협력기금 국제개발 논문공모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일반대학원 기후국제협력학과 이은지, 경제학과 변용구 학생으로 구성된 클라이메이트팀은 '한국형 대재해 채권을 통한 베트남 기후 적응력 강화와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에 관한 논문을 공모했으며, 전국 예선을 거쳐 결선 발표에서 "대재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민간재원을 유입하여 기후 적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과 상금(300만원)을 받았다.

환경공학과 권용범 대학원생,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환경공학과 권용범 대학원생의 논문 2편이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 승인되는 쾌거를 이뤘다. 권용범 학생은 학부 수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신환경오염물질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2편의 연구논문을 제출했다.

제1저자로 작년에 제출한 2편의 연구논문이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 승인되며,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인 SCI 집계의 바탕이 되는 학술지 'Fresenius Environmental Bulletin'과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에 각각 게재될 예정이다. 권용범 학생은 현재 본교 대학원 환경에너지공학과 석사 2차 과정 재학하여 대기환경, 기후변화, 신환경오염물질 등 다양한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에 있다.

우리대학 여자테니스부, 전국추계대학연맹전 단체전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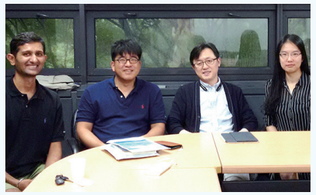
우리대학 여자테니스부가 지난 9월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71회 전국추계대학연맹전 겸 제29회 회장배 테니스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우리대학은 여대부 단체전(4단1복) 결승전에서 영산대학교를 종합 점수 3대 1로 꺾었으며, 윤수진과 윤소희가 1·2단식, 박상봉이 4단식에서 각각 승리했다. 이재식 감독은 "에이스 권미정이 빠져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똘똘 뭉쳐 큰일을 해냈다.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수소식

김장균 교수, 미국 친환경에너지 개발 연구과제 선정

해양학과 김장균 교수 연구팀이 미국 에너지부에서 지원하는 '해조류 외해 양식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개발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미국 에너지 첨단 연구 프로젝트 사무국은 지난 9월 외해의 해조류 양식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로 발표하며, 우리나라 연구자로 유일하게 해양학과 김장균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을 선발했다. 김장균 교수팀은 외해양식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외해양식 기술 개발 등 두 개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었으며, 외해양식에 적합한 새로운 다시마 품종 개발을 통해 30%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장균 교수는 "해조류의 외해양식 연구지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미미하다."며, "이번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최신 외해양식 기술을 개발 습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대학-아주대, 수소에너지 증대 기술개발



우리대학 전기공학과 김준동 교수팀과 아주대학교 화학과 김유권 교수팀이 2차원 물질의 광반응을 이용하여 수소에너지를 확보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보고하였다.

2차원 물질의 대량 생산과 이를 통한 수소에너지 생산에의 근간기술이 개발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직 성장된 2차원 황하주석 물질을 이용하여, 수소의 발생을 크게 증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개발에서 우리대학의 말케시 파텔 박사는 2차원 황하주석의 수직성장 개발하고, 우리대학 김홍식 선임연구원은 대면적 공정기술을, 그리고 아주대의 쟈오메이 유 박사가 2차원 물질의 광반응 메카니즘을 규명하였다.

우리대학 김준동 교수는 "금번에 개발된 2차원 물질의 광촉매의 기술은 고감도 광센서, 태양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로의 파급이 매우 클 것"이라며, 향후 "투명한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호철 교수, 美 헤리티지재단 주최 국제심포지엄 초청 연설

정치외교학과 이호철 교수가 지난 10월 19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에 초청되어 '북핵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연설을 펼쳤다.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씽크탱크로서, 최근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호철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비핵평화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방안들을 제안해 박수를 받았다.

캠퍼스소식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출정식 개최

10월 18일 송도캠퍼스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축구, 배드민턴, 사격, 테니스, 양궁, 탁구, 검도, 카누 등 총 8개 종목에 72명(감독 7명, 선수 65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이날 출정식에는 조동성 총장,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광오 인천대 동문회장, 선수단,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성 총장은 "그동안 피땀 흘려 수고한 노력들이 대회에서 고귀한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안전한 경기를 펼쳐 달라."고 격려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학생 봉사단 출범

우리대학과 인천재능대학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총 163명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대학생 봉사단은 동계올림픽대회 98명, 동계패럴림픽대회 6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인천대학교는 72명이 참여한다. 봉사단은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인천공항에 배치되어 교통 안내를 지원하고,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평창에서 관중 안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봉사에 참여한 체육학부 3학년 박주훈 학생은 "올림픽대회 지원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으며, 허진 학생입학취업처장은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두 대학이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대학생 봉사단이 안전하게 봉사활동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U 공학페스티벌 개최

우리대학은 지난 9월 14일 '2017 INU 공학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공학페스티벌은 공학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여 공학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우리대학이 매년 9월에 개최하는 행사로,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업지원단, 취업경력개발원·대학일자리센터, 현장맞춤형 실전문제연구단이 공동 주관했다. 주요 행사로는 제13회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창업동아리 우수작품 전시회, X-Idea Contest 등이 있다. 그 밖에 공과대학 Open Lab, 공학퀴즈대회,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청년 CEO 초청특강, 창업상담, 직무박람회, 청년고용정책 홍보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관계자는 "INU 공학페스티벌은 공학적 사고 증진, 공학설계 프로그램 성과 전시, 취업, 창업, 연구 등 공학관련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일본 자매대학 81명 초청, 한국문화체험 행사 개최

우리대학이 일본 9개 자매대학 81명의 학생들을 초청하여 '2017년 일본 자매대학 초청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일본 학생들은 6일간 우리대학 생활원에 머물면서 40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차이나타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사동, DMZ, 한국민속촌 견학과 한식만들기 등의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체험에 참가한 히로시마 슈도대학 쿠와타 캔세이 학생은 "인천대학교 한국문화체험을 통해서 한국의 언어는 물론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여행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한국 대학생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국제교류원 질타오 원장은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일본 내에서 인천대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일본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200여 명 초청, 맞춤형 취업코칭제 '취업콘서트' 개최

지난 9월 13일 우리대학이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콘서트는 글로벌 취업컨설팅기업 CP Team 김조엘 대표를 비롯하여 나이키코리아, 아이비엠, 화웨이의 기업 실무자를 초청, '취업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명쾌하게 풀어주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찬근 부총장은 "대학에 있는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이용 개인역량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우리대학은 취업준비생 뿐 아니라 취업지원 교사 및 실무자, 취업준비생 가족, 일반시민 등 참가대상을 확대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2018년 취업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INU 뉴스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

우리대학은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학준 이사장, 김광오 총동문회장, 권혁철 경인방송대표이사, 김은환 경인일보인천본사사장, 채홍기 인천언론인클럽회장, 인천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주요 내외빈, 졸업생 및 학부모 약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사 15명, 석사 152명, 학사 923명 등 총1,090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대는 과거 사립대부터 현재 국립대까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고, 앞으로 세계 100대 대학 진입 목표를 이루어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 대학 구성원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성 총장은 “요즘 사회나 기업에서는 전문 능력 뿐만 아니라 ‘인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며, “인성을 갖춘 인천대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에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경인지역 대학 간 상호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 조동성 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와 우리대학이 ‘경인지역 대학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인지역 고등교육 발전과 지역사회의 연구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이번 협약식은 국내 최대 규모로 우리대학을 비롯 가천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32개 회원교 중 29개 대학들이 참여했다.

주요 협정 체결 내용으로는 학점 상호인정, 복수·공동학위 제도 구축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강의 수업방식 등의 교수학습법 교류와 공동연구 활성화,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 상호 교류를 위한 내용을 체결했다.

조동성 총장은 “다른 지역의 어떤 협의회보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공동학위, 복수학위를 논의해가면서 선도적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동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을 통해 경인지역만의 직면한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각 학교의 베스트 사례를 통해 경인지역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ICT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보기술대학(학장 성미영)과 (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상현)는 지난 10월 18일 송도캠퍼스 영상회의실에서 ICT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학생들의 ICT분야 실무교육 관련 정보 공유,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 활성화, ICT 인재 양성 사업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ICT분야 정부사업 제안 및 수행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INU 뉴스

바이오경영학과-셀트리온, 교육프로그램 운영 팀티칭 상호협력 약속

우리대학과 셀트리온(대표이사 김형기)이 바이오경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우리대학은 국내최초로 설치된 바이오경영학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셀트리온과 손을 맞잡고, 효율적인 강좌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17일 강의 참여 교수진들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2학기 강좌 운영 계획을 논의하였다.

2017년 2학기부터 셀트리온은 바이오경영학과에서 ‘바이오제품개발’ 교과목을 팀티칭의 형태로 운영하며, 셀트리온의 박사급 임원 5명이 시간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장신재 수석부사장, 이상준 부사장, 이수영 상무, 이상윤 상무, 백경민 이사가 참여한다. 주요 강의내용은 바이오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셀트리온의 연구개발 히스토리 및 성과, 연구개발 과정과 생산 및 출하과정 및 제품화 과정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들과 토론과 질문 등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 배양으로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대학에서는 이번 팀티칭 과목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다른 교과목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에릭 솔하임 UNEP 사무총장 특강

우리대학은 지난 8월 9일 에릭 솔하임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혁신과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서 에릭 솔하임 사무총장은 “환경 거버넌스에 있어서 청소년 및 대학생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지구 모든 나라들이 연관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의 노력을 촉구했다. 에릭 솔라임 사무총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송도캠퍼스를 둘러보고 대학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환경 분야 관련 유엔환경계획과 우리대학의 협력 방안, 친환경캠퍼스 구축관련 협의, 그린캠퍼스 관련 유엔환경계획 한국사무소 유치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국제약협동조합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이 지난 9월 25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대학과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상호 관심 분야인 제약 및 바이오산업의 학술연구 정보를 교류하고, 항체, 줄기세포 등 제약 및 바이오산업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바이오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해 향후 제약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전망이다.

조동성 총장은 “바이오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산업계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이번 협력 사업들이 산학 협력의 선도적 모델이 되기를 희망하고 제약 및 바이오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의 관심이 지역의 발전으로

1994년, 대한민국이 변화와 발전의 격동기를 거치고 있을 즈음, 학교와 인천을 위해 20대를 보낸 사람이 있다. 인천대 시립화와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거치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변화를 경험한 그는 이때의 경험으로 사회와 인천을 위해 평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기계공학과 91학번 김응호 동문을 만났다.

edit 최단비 photograph 최준근

기계공학과 91학번
김응호 동문

시민들을 위해 나선 시립대의 역할

김응호 동문이 우리대학에 입학했을 때 인천대는 막 사학에서 시립대가 되는 시점이었다. 시립대로의 전환은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우리대학 모든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도움이 컸다.

"시립대로 바뀌고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지지하고 도와주는 걸 보면서 우리대학이 시립대로서 지역을 위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입학 후 변화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사회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94년 12월, 학생회장에 막 당선 되어 학교 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 인천 굴업도 주민들이 김응호 동문을 찾아왔다.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지정된 굴업도를 위해 인천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찾아오신 분들은 모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다. 시립대학으로서 새로운 체계를 잡기에도 바쁜 시간이었지만 우리대학 학생 모두가 기꺼이 굴업도를 위해 나섰다. 당시 안전공학과 김성준 교수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운동을 시작했고, 총학생회 출범식에도 굴업도의 주민이 함께할 정도로 그들의 관계는 돈독해져 갔다.

김응호 동문은 인천시와 인천대가 서로 돕고 발전하는 것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인천 유일의 시립대로서 지역을 위해 할 올바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회장 경험, 지역 위한 일꾼으로

김응호 동문이 전공인 기계공학 대신 정치로 진로를 정하게 된 건 학생회장 경험의 영향이 컸다. 그가 처음부터 정치에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학생회장을 하며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자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현재 김응호 동문은 정의당 인천시 당위원장을 맡아 인천시민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학교를 위해 나섰던 패기 넘치던 그 시절의 경험을 살려 인천사회와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세월이 지났지만 그에게 인천대는 출신대학 이상의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다.

"우리대학이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면서 과거에 비해 인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큰 미래로 나가야할 시점에서 후배들이 국립인천대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대학 동문들도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로 성장했습니다. 옛 인천대의 발전을 위해 힘썼던 선배와 현재의 후배들이 힘을 합쳐 국립인천대가 백년의 대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비전을 함께 설립했으면 합니다."

동문 소식

김시석 동문, 우리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전국체전 우승

우리대학이 16년 만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다. 이번 쾌거는 선수들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선수 못지않게 뒤에서 노력하는 감독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대학 축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김시석 동문(체육 82)은 인터뷰에서 우승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다. 추석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훈련에 매진했다. 16년만의 우승인데 정말 기쁘고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김 감독의 다음 목표는 왕중왕전이다. "다음 목표는 왕중왕전이다. 잘 준비하겠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아줘 정말 고맙다.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들도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다 같이 노력하고 인내해 하나가 됐다. 올해 타이틀 하나를 꼭 따자고 약속했는데 그 목표를 이뤄 기쁘다. 선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함께 고생한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김권중 동문, 제14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장 취임

김권중(전기 80) 동문이 제14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연구원장은 전기안전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두뇌'인 전기안전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기안전 분야의 브레인이자 새로운 시장의 길잡이로서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김 원장의 전언이다. "연구원들이 보다 단결된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까지 외부에서 영입을 통해 자리를 채웠던 기획부장을 내부 인재로 채웠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기획부장, 인증센터장, ICT센터장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 원장은 앞으로 조직 내 장애물을 걷어내고 서광이 비추는 소통과 공유의 첫 걸음에 앞장 서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포천 명성산, 토요 기획산행 성료

지난 10월 14일, 포천 명성산에서 열린 토요 기획산행에서 우리 동문과 가족들 20여 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산행은 2012년 3월 시작됐으며, 10월 7일에 맞은 290회를 기념하는 의미로 기획됐다. 올 12월에는 300차를 기념하는 산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공학과 총동문회 소래산 산행

지난 10월 21일, 안전공학과 총동문회가 소래산 산행을 실시했다. 평소 활발한 활동과 교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인 안전공학과는 이번 행사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역사모임 동아리, 학원민주화기념사업회 방문

우리대학 역사모임 동아리 학생들이 학원민주화기념사업회를 방문했다. 박시은(사회복지학과) 학생 외 3명은 지난 9월 10일 오후 기념사업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우리대학의 학원민주화 역사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수영 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과 총동문회 권기태 사무처장, 남승균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인천대 학원민주화의 과정과 의의를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제1회 한가위 맞이 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난 9월 30일, 동문배드민턴 동호회는 '제1회 한가위 맞이 회장배 동문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풀 리그전으로 한 팀당 6게임을 치룬 이날 대회에서 최병길 교수, 안희섭(정외) 동문의 우승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준우승 천인순·김창기 동문 조, 3위 박한호·황철용 동문 조, 4위 양용주·남승균 동문 조가 차지했다.

배드민턴부 격려 석찬회 개최

지난 9월 4일, 그동안 많은 대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모교 배드민턴부를 격려하기 위한 석찬회가 마련되었다. 전지원 배드민턴 감독과 선수를 비롯하여 김광오 총동문회장, 정수영 법인이사 등이 함께하였다. 이날 석찬회를 통해 더욱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배드민턴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감독과 총동문회장, 정수영 법인이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총동문회는 배드민턴부에 기념품을 전달하였으며, 배드민턴부도 총동문회에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우리대학 축구단에 격려금 전달

지난 9월 26일, 총동문회가 마련한 '총동문회-모교 축구부 석찬회 및 격려금 전달' 행사가 있었다. 10월 중순 충주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프로축구단 안양FC을 상대로 연습경기를 치렀고 이날 연습경기는 우리대학 축구부가 2:1로 승리했다. 경기 후 김광오 총동문회장, 김용식 교수, 한기성 이사, 노용수 이사가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 자리에서 동문축구단을 대표해서 노용수 동문이 격려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나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전

[정상철 교수]

기부, 과연 여유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일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에이, 그래도 교수님인데 나랑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생각이 부끄러워질 정도 크나큰 착각이었다. 내 것을 나누는 일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사람이 얼마나 있으랴.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또 나부터 나서야 할 일이기에 오늘도 그는 누군가를 위해 콩 한 쪽을 나눈다. 우리대학 정상철 교수의 이야기다.

edit 유서진 photograph 최춘근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경상학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년 8월에 정년퇴임한 정상철입니다. 그동안 우리대학 도서관장을 비롯해 한국전자상거래학회 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부회장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Q. 최근 우리대학 발전기금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A. 퇴임할 때 1억 원을 냈고 이번에도 1억 원을 또 냈습니다. 퇴임 전 학산도서관장으로 오래 있어서 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대학이 제2도서관 건립을 계획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두 번째 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Q. 큰 금액인데 고민은 없으셨는지요.

A. 약간의 망설임도 없었다면 거짓이겠지요.(웃음) 여러 이유로 고민이 있었지만 학교의 발전을 위함이라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가 올해 96세이신데 성당을 다니시며 한평생 기부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저 역시 기부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기부금이 좋은 곳에 쓰이는 걸 보는 소감은?

A.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도움 받은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이 또 다시 기부를 해 누군가를 돕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며 자부심을 느끼고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운이 깃들지 않을까요.

Q. 우리나라 기부 문화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미국은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조차도 기부를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기부의 의미는 '큰돈을 내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액 일지언정 사회 그리고 이웃과 나눈다는 데에 참뜻이 있는 겁니다.

"도움 받은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이 또 다시 기부를 통해 누군가를 돕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며 자부심을 느끼고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운이 깃들지 않을까요."

Q. 기부금이 어떤 방향으로 쓰였으면 하시나요.

A.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한 마디 더 보태자면 외국 대학은 'IT도서관'이라고 부르는 단과대학별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토의하는 시간을 갖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개의 도서관이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나마도 세미나실이나 열람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인다면 우리대학에도 IT도서관이 꼭 건립되길 희망합니다. 도서관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친근함이 생길 터, 이것이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Q. 기부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픈 말이 있다면?

A. 생활이 어려워지고 각박해지다보니 기부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유가 있더라도 본인을 위해 쓰고 싶기도 하고요.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 아주 조금만이라도 타인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Q. 인생의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A.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책에는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비록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타인의 경험을 가장 생생하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좌절하지 말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꿋꿋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힘은 책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발전기금 뉴스

인천공항공사, 대학발전기금 1억 원 전달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8월 29일 인천공항공사청사에서 우리대학에 대학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우리대학과 인천공항공사 업무분야의 특성과 연계한 교육나눔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발전기금은 도서관 및 스터디 라운지 등 교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우리대학 조동성 총장과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이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이번 기금이 인천지역의 교육발전과 더불어 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물류산업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기부금 전달 소감을 밝혔다.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대학발전기금 1억 원 전달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조현준 본부장은 8월 22일 우리대학을 방문해 조동성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우리대학을 세계 최고의 바이오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해 나가는 인재양성 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에서는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에 2014년도에 시스템 구축비 3억7,700만 원을 지원했고, 2015년부터 금년까지 시스템 운영비 9,900만 원과 대학 발전기금 3억 원 등 총 7억7,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조현준 본부장은 “인천대가 지역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능력 있는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세계를 열어가는 선도적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기부금 전달 소감을 밝혔다.
이에 조동성 총장은 조현준 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기탁된 발전 기금은 2020년 실용학문 중심의 연구거점 대학으로 육성해 나가는 인재양성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의 복지와 장학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7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은 지난 10월 18일 오전 11시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독어독문학과 3학년 최재정 학생 등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에 열의가 높은 96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9,600만 원이 전달됐다.
조동성 총장은 “오늘의 장학금을 받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여러분을 축하한다.”며, “장학금 수상을 계기로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03년 설립된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은 그동안 기부금 및 운영수익 등을 통해 29회 24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고, 올해에는 총 192명에게 1억9,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책대학원 제39기 원우회,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정책대학원 제39기 최고관리자과정 원우회(회장 하재동)는 10월 18일 대학본부 영상회의실에서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정책대학원 39기 최고관리자과정 원우 31명이 그동안 학교에 대한 고마움과 모교의 발전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정성을 모은 것이다. 원우들은 평일에는 공직자, CEO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매주 월요일 야간에는 정책대학원에서 인문학, 건강관리, 자산관리 등의 다양한 강의를 수강한다. 최고관리자과정은 1학기, 2학기 총 30주 동안 강의가 진행되며 12월 중순 수업을 마치고 내년 2월 수료식을 갖게 된다.
정책대학원 송다영 원장은 “기부된 발전기금은 원우들의 뜻을 헤아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발전기금 현황 (2017년 8월 1일 ~ 2017년 10월 31일)

기부 현황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농협은행(주) 인천시청지점	기업	100,00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	100,000,000
계양국제어학관	단체	83,062,050
유선/인천직업전문학교	기업	25,000,000
(주)에스피지	기업	9,000,000
조동성	교원	6,000,000
변윤식	교원	1,500,000
김삼현/가온종합물류(주)	기업	1,200,000
김용래	개인	1,000,000
이원준	교원	1,000,000
정책대학원 제44대 원우회	단체	1,000,000
포스코건설	기업	1,000,000
곽병선	교원	750,000
권혁준/(주)시트론정보통신	기업	600,000
이정연(임소영)	개인	600,000
김영관	교원	450,000
조중휘	교원	450,000
박구웅	교원	400,000
강현철	교원	300,000
곽문선	조교	300,000
구경헌	교원	300,000
김승태/드림오피스(세연인포)	기업	300,000
김장성	동문	300,000
노영돈	교원	300,000
박종승	교원	300,000
삼우기공/이영자	기업	300,000
양미혜	교원	300,000
이군익	동문	300,000
이상동	직원	300,000
이승민	동문	300,000
이영애	교원	300,000
이은주	교원	300,000
이재성	동문	300,000
이정식/(주)한마	기업	300,000
정광훈/유카스에너지	기업	300,000
차기율	교원	300,000
홍진배	교원	300,000
권영산	개인	300,000
김문수	개인	300,000
이순득/(주)진성엔텍	기업	300,000
전성택	교원	300,000
조형호	동문	300,000
(주)올인원시스템	기업	200,000
권은상	학부모	200,000
김상현	동문	20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유신/미림전력	기업	200,000
노창근	동문	200,000
박준상	학부모	200,000
방준식	학부모	200,000
배양섭	교원	200,000
송수식	학부모	200,000
양운영	개인	200,000
양철수	학부모	200,000
이병관	동문	200,000
이영진	학부모	200,000
이종열	교원	200,000
정기호	학부모	200,000
한창원	동문	200,000
홍필기/서인천현대모터스주식회사	기업	200,000
황민식/해천이엔씨	기업	200,000
추성호/인성환경	동문	200,000
김관호	교원	150,000
김숙진	동문	150,000
김승환	직원	150,000
김흥근	동문	150,000
박지선	교원	150,000
설경자	직원	150,000
소대수	동문	150,000
유정흔	동문	150,000
이숭열	직원	150,000
이종헌	동문	150,000
이혜숙	동문	150,000
임정훈	교원	150,000
제희태	동문	150,000
김교흥	동문	150,000
심광흠	동문	150,000
이상연	동문	150,000
고형래	학부모	100,000
권도윤	개인	100,000
김광수	학부모	100,000
김동철	학부모	100,000
김정훈	학부모	100,000
모영환	개인	100,000
박성수	학부모	100,000
박성윤	학부모	100,000
박수빈	동문	100,000
박은경	학부모	100,000
서진숙	학부모	100,000
오명주	학부모	10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원일우	학부모	100,000
유정희/(주))H에너지	기업	100,000
윤상은	학부모	100,000
윤용	동문	100,000
윤용식	직원	100,000
이성욱	동문	100,000
임동구	학부모	100,000
조성현	학부모	100,000
조주환	동문	100,000
최영선	학부모	100,000
황현배	동문	100,000
황희민	학부모	100,000
고민정(조교)	조교	90,000
김규만	동문	90,000
김태성	교원	90,000
박은경	교원	90,000
박진우	교원	90,000
우인성	교원	90,000
윤영돈	교원	90,000
이창연	교원	90,000
장인우	교원	90,000
신철호	동문	90,000
구태환	교원	75,000
박근수	교원	75,000
임일진	교원	75,000
하병훈	교원	75,000
권오중	교원	60,000
문병수	교원	60,000
박종석	직원	60,000
오복자/국제광고(전무홍)	동문	60,000
이준호	직원	60,000
최명종	직원	60,000
고애숙	학부모	50,000
김성근	학부모	50,000
김환식	직원	50,000
오유미	학부모	50,000
유지애	학부모	50,000
임승빈	직원	50,000
조동만	학부모	50,000
홍윤표	학부모	50,000
황용	동문	50,000
김보슬	동문	40,000
고덕봉	직원	30,000
김경아	조교	30,000
김규원	교원	30,000
김기만	직원	3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윤신	교원	30,000
김일남	교원	30,000
김재철	동문	30,000
김지용	교원	30,000
김지훈	동문	30,000
김치용	동문	30,000
김형기	직원	30,000
문종욱	동문	30,000
문준영	교원	30,000
박민범	교원	30,000
박영돈	교원	30,000
박정연	직원	30,000
박정희	동문	30,000
배가람	동문	30,000
신천수	직원	30,000
안동찬	직원	30,000
안춘순	교원	30,000
윤덕영	동문	30,000
윤병선	동문	30,000
이두영	동문	30,000
이문학	교원	30,000
이상봉	동문	30,000
이성호	동문	30,000
이애영	직원	30,000
이양현	조교	30,000
이정희	직원	30,000
이종훈	동문	30,000
이진희	직원	30,000
임찬옥	직원	30,000
임태은	교원	30,000
장소영	직원	30,000
장현주	직원	30,000
최민경	조교	30,000
최재혁	직원	30,000
한상길	조교	30,000
한종민	직원	30,000
허광현	학부모	30,000
허성희	직원	30,000
홍현경	조교	30,000
박규봉/서진엔지니어링(주)	기업	30,000
유병순	조교	30,000
이병기	동문	30,000
윤선인	교원	30,000
김영목/승일자동차공업	기업	20,000
서상범	직원	10,000
윤희랑	동문	5,000

우수리 현황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유재은	조교	29,670
이원준	교원	29,640
황태진	직원	29,610
김형기	직원	29,440
최인수	직원	29,270
노지승	교원	29,130
강하라	교원	29,100
이종혁	직원	28,830
조혜영	교원	28,460
윤정아	직원	28,320
임병미	직원	28,060
박지선	교원	27,960
임정훈	교원	27,960
정영식	교원	27,900
홍영진	직원	27,840
유종근	교원	27,750
장서은	직원	27,720
채숙희	교원	27,660
최윤희	직원	27,660
정종태	교원	27,510
황영삼	교원	27,270
김현우	직원	27,060
곽문선	조교	26,910
김선경	직원	26,790
박종돈	교원	26,760
신미옥	직원	26,670
장진주	직원	26,380
오원선	교원	26,250
변윤식	교원	26,190
여운호	교원	26,110
이한영	교원	25,890
김동호	직원	25,770
오혜영	조교	25,760
이진희	직원	25,700
박정승	직원	25,680
강상미	직원	25,590
이영석	교원	25,530
곽준경	조교	25,410
조재인	교원	25,380
전찬기	교원	24,960
안영효	교원	24,900
김승규	교원	24,810
김종호	직원	24,690
이영수	교원	24,59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정기	직원	24,390
심형보	교원	24,390
나인강	교원	24,330
조현우	교원	24,280
김진호	교원	24,210
전재철	직원	24,110
최원	교원	24,030
이선영	조교	24,010
최성을	교원	23,820
김수현	조교	23,610
김평원	교원	23,460
이시자	교원	23,260
김광수	직원	23,200
김윤신	교원	23,190
최형우	직원	23,150
이진원	교원	22,860
최윤정	직원	22,770
김순옥	직원	22,630
권기영	교원	22,590
김재곤	교원	22,500
김환용	교원	22,440
전지혜	교원	22,380
이윤정	조교	22,110
김강우	교원	22,080
장희경	직원	22,050
조명순	직원	22,020
홍기용	교원	21,720
이향숙	교원	21,710
우인성	교원	21,690
안효진	교원	21,650
홍현숙	직원	21,480
차기율	교원	21,330
임지현	직원	21,160
강치후	조교	21,150
민금홍	직원	21,000
박상임	직원	21,000
김정아	직원	20,820
윤태웅	교원	20,790
이석기	직원	20,360
박문주	교원	20,320
한종민	직원	20,010
허성희	직원	19,810
김익수	교원	19,770
이상동	직원	19,770
강연제	직원	19,710
유혜경	교원	19,58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이충우	직원	19,400
정선영	교원	19,380
김관식	직원	19,350
박승진	교원	19,350
최윤경	교원	19,230
송원용	교원	19,130
송현호	교원	19,110
경명진	직원	18,960
민철기	교원	18,780
이은직	조교	18,780
홍현경	조교	18,630
유은정	조교	18,460
최영미	조교	18,260
정보람	조교	18,180
전동근	교원	18,050
황선용	직원	17,900
박성완	교원	17,870
김성연	교원	17,820
김정민	직원	17,820
김창우	직원	17,490
송다영	교원	17,490
조봉래	교원	17,490
박재일	직원	17,400
박형의	직원	17,400
차지수	조교	17,370
신원태	교원	17,130
안해균	직원	17,020
서정현	교원	16,890
공용득	직원	16,800
권오미	직원	16,770
이윤	교원	16,640
안정규	교원	16,630
이향숙	직원	16,590
김준석	교원	16,410
김기준	교원	16,360
조길수	직원	16,260
윤지영	조교	16,230
문은호	직원	16,220
정경찬	직원	16,200
한상정	교원	16,050
이승철	직원	15,990
박은경	교원	15,780
심인애	직원	15,670
김진한	교원	15,570
권혁준	교원	15,500
우제대	직원	15,4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이승매	교원	15,360
박시우	직원	15,180
김우일	교원	15,120
최성욱	교원	15,110
김광열	직원	14,940
김영주	직원	14,910
김순홍	교원	14,820
정영민	직원	14,810
김용민	교원	14,760
신광섭	교원	14,760
오지은	조교	14,610
권정희	직원	14,550
최병길	교원	14,550
방재한	직원	14,520
김산정	직원	14,510
나인수	교원	14,470
김기만	직원	14,460
민홍기	교원	14,440
구선희	직원	14,350
김내현	교원	14,190
조천순	직원	14,160
김선희	교원	14,150
이병관	조교	14,140
정옥경	교원	14,040
박승준	교원	14,010
신용권	교원	13,710
이연희	직원	13,710
고덕봉	직원	13,650
윤춘화	직원	13,350
민문기	직원	13,330
김응철	교원	13,290
권정호	교원	13,140
박종승	교원	13,080
최계운	교원	13,020
조사옥	교원	12,970
안승범	교원	12,900
윤세원	교원	12,660
윤종구	직원	12,570
황명환	교원	12,550
이나영	직원	12,490
김동규	직원	12,390
안춘순	교원	12,330
이준호	직원	12,230
김복영	교원	12,210
조중휘	교원	12,190
홍선표	교원	12,180

무통장 후원하기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학만	교원	12,130
김형근	직원	12,130
이희관	교원	12,100
최재웅	직원	12,040
이영애	교원	11,960
황병희	교원	11,910
강효현	직원	11,860
김성희	교원	11,770
한승헌	직원	11,750
신현주	조교	11,660
손정숙	직원	11,450
이지은	교원	11,160
황미옥	교원	11,140
이병하	교원	11,130
전용재	직원	11,100
김정업	조교	10,860
설경자	직원	10,860
장소영	직원	10,800
방동인	직원	10,640
주현태	교원	10,530
심민석	교원	10,460
우요섭	교원	10,410
이원종	교원	10,380
여기태	교원	10,340
장현주	직원	10,080
김장균	교원	10,020
안호선	교원	10,020
정연서	조교	10,020
이운형	교원	9,930
박지훈	교원	9,910
노정호	직원	9,810
정승미	직원	9,390
김수진	교원	9,360
양해숙	직원	9,330
정해준	교원	9,280
박정훈	교원	9,180
배양섭	교원	9,180
채진석	교원	9,140
박주문	교원	9,050
빈상찬	직원	9,000
신은기	교원	9,000
김재광	교원	8,740
이건상	교원	8,730
이승열	직원	8,460
김은영	교원	8,430
백종숙	직원	8,23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이민철	교원	8,190
강상혁	교원	8,180
정경란	직원	8,090
최일용	직원	8,070
이창연	조교	8,010
최은미	교원	7,920
박미선	직원	7,740
홍현표	직원	7,680
양운근	교원	7,650
박재윤	교원	7,620
박인선	교원	7,530
서상범	직원	7,490
김경아	조교	7,290
이황주	직원	7,290
윤효훈	직원	7,170
양승모	조교	7,060
윤용식	직원	7,030
최재혁	직원	6,890
홍수민	직원	6,840
이원경	교원	6,660
박정준	교원	6,650
이창길	교원	6,610
윤창근	직원	6,600
김선호	교원	6,540
장인우	교원	6,540
이진섭	직원	6,420
김동욱	교원	6,350
유재란	직원	6,330
전동진	조교	6,200
서종국	교원	6,120
이도균	교원	5,670
이병학	직원	5,650
이지영	조교	5,600
강승택	교원	5,520
김동배	교원	5,500
김찬주	교원	5,490
김은선	직원	5,360
천성철	교원	5,320
박주연	직원	5,310
오은하	교원	5,040
김영철	직원	4,890
임순	교원	4,730
김혜미	교원	4,350
고은희	직원	4,290
박찬진	교원	3,930
이효은	조교	3,87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한상혁	직원	3,720
황상순	교원	3,660
임경환	교원	3,540
이동후	교원	3,510
황미숙	조교	3,510
전석희	교원	3,420
김태완	교원	3,210
배순희	직원	3,180
고혜영	교원	3,080
강현욱	교원	2,910
박홍규	교원	2,840
박용호	교원	2,640
김영희	교원	2,000
전병준	직원	1,950
여인철	교원	1,580
안순길	교원	1,440
문옥미	직원	1,230
우금순	직원	840
안익태	직원	780
송상화	교원	630
이찬식	교원	630
최병심	직원	570
한양호	직원	150